

경광등도 안 켜지는 ‘깡통 순찰차’ 논란

신형 불구 112시스템 태블릿 미설치...전남 보급 6대 임무 수행 불가능
신정훈 의원 지적...일부 표준 사양과 맞지 않고 부실 납품 문제 발생도

경찰이 최근 전국에 보급한 신형 순찰차가 112시스템이 설치돼 있지 않고 경광등조차 작동하지 않아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인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깡통 순찰차’가 보급되면서 전남 지역의 일선 경찰서에서는 기껏 받은 차량을 경찰서에 주차해 둔 채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이 전국 시·도경찰청에 요청한 고속순찰차 및 SUV 순찰차 보급 현황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일 전남 경찰청과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등 3곳에 순찰차를 보급했다. 보급된 순찰차는 그랜저와 넥쏘 등 2종이다.

전남경찰청은 고속도로순찰대에 고속순찰차 5대를, 목포경찰서에 SUV 순찰차 1대를 보급받았다.

다만 이들 차량은 보급받은 지 2주일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보급받은 차량에 112시스템 태블릿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12시스템 태블릿은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태블릿이다. 112 시스템과 연동돼 긴급 신고 처리 및 현장 상황 파악을 돕는 장비로,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순찰차에 도입됐다.

112시스템 태블릿은 멀티캠, 블랙박스 확인, 경광등 제어 등 순찰차 전반의 기능을 통합 관리하고 있어 순찰자의 필수 장치로 자리잡았으나, 기본적인 장비조차 설치되지 않은 것이다.

순찰차를 보급받은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대구경찰청은 대구동부경찰서와 대구달성경찰서에도 각각 한 대씩 순찰차를 보급받아 운행까지 하고 있으나, 태블릿에는 통합디바이스·멀티캠·경광등·블랙박스 등 기능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표시돼 작동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구동부경찰서 차량은 차량 디스플레이에서 순찰차 엠보자 표출되지 않는 상태다.

경북경찰청은 고속순찰차 13대를 보급받아 교통과 고속도로순찰대에 배정했는데, 태블릿뿐 아니라 차량용 무전기까지 설치되지 않은 상태라 13대를 모두 운행하지 못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오는 17일 태블릿을 이전설치 후 작동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당장 보급받은 순찰차를 운행할 수는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순찰차를 보급받고 통신 시스템 등 기본 장비가 갖춰지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며 “장비가 제대로 장착돼 운행할 수 있게 되지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전국에 배치된 신형 넥쏘·그랜저 고속순찰차 125대 중 21대에서 표준 사양과 맞지 않는 경광등이 설치되거나 구조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전광판이 달리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491억원을 투입해 노후 순찰차 959대를 교체해줬다고 나갔다. 일반 차량에 랩핑을 해 순찰차 외관을 갖추고 전용 장비를 장착해 납품받는 방식이다.

지난달에는 납품 대상인 순찰차 중 343대(225억원 상당)가 납기일을 수개월 넘기고도 납품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중 늦게나마 납품된 일부 순찰차에서 부실 납품 문제까지 발생한 것이다.

신정훈 의원실 관계자는 “순찰차는 일선 경찰관에게 사무실이나 다름없는데, 차량을 제대로 만들지도 않고 보급을 한 여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며 “일각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순찰차 제어 시스템 납품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부적격 차량에 대해 적격 처리를 해줬다는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나오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전남대학교 안전지킴이 순찰 로봇이 야간 시간 캠퍼스 5·18광장 내를 순찰하고 있다.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알고보니 신고자는 로봇

전남대 자율주행 순찰로봇 따라가보니

반경 50m 3차원으로 스캔
낙상·화재·비명 등 인지해 경고
상황실 연결돼 직원이 즉시 대처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안전에 주의하세요.”

지난 12일 밤 9시에 찾은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5·18광장(봉지)에서 넘어진 사람을 보고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경비원도, 학생도 아닌, ‘자율주행 순찰 로봇’이었다. 전남대 안전지킴이 로봇 ‘패트로버’가 쓰러진 사람을 감지하고 곧바로 상황실에 알리를 전파한 것이다.

전남대는 지난해 2월부터 무인경비 자율주행 순찰 로봇을 시범도입, 그 해 6월 정식 도입해 이달 도입 1년차를 맞았다. 전남대는 캠퍼스가 넓어 유인 경비의 한계점이 있었고, 경비원 순찰의 부족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순찰로봇을 도입했다.

이날 로봇이 잔디밭 주변을 돌아다니며 순찰을 돌자 시민들은 “신기하다”, “말도 하고 재밌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 밤 산책을 나온 아이들은 로봇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졸졸 따라다니기도 하는 등 ‘인기 만점’이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나오면 밤에 순찰로봇을 늘 봐왔던 안원호·박동혁·황현진(25)씨는 요즘에도 처음 보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은 신기해한다고 했다. 안 씨는 “잔디밭에서 술을 먹기도 하고 쓰레기 문제도 많아서 봉지를 순찰하는 것 같다”며 “사고방지 목적이라면 기속사쪽이나 어두운 지역에서 학우들의 안전을 지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전남대 학생 커뮤니티 앱 ‘전남대 에브리타임’에는 “봉지 순찰로봇에 농락당했다”는 제목의 게시글도 올라왔다. 학생이 혼자 잔디밭에서 누워서 뒹굴거리자, 순찰 로봇이 “사람이 쓰러져있습니다”라고 외쳐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는 글이다.

로봇의 크기는 가로 75cm, 폭 103cm, 높이 115cm에 무게는 90kg다. 로봇에는 반경 50m를 3차원으로 스캔해 공간을 파악하는 공간인지 센

서, 전후좌우 4개 카메라, 화재 감지 센서, 열화상 카메라, 대기오염측정장치 등이 장착돼 야외 공간을 순찰하는 데 특화됐다.

이 로봇은 매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어두운 시간대에 전남대 캠퍼스 일대 1.4km 구간을 25분에 걸쳐 순찰한다. 용봉관에서 출발해 제1학생마루(제1학생회관), 도서관별관(백도), 도서관본관(홍도)을 지나 용봉관으로 돌아오는 코스다. 순찰을 마치면 스스로 충전기를 찾아가 25분간 충전을 하고 다음 순찰을 준비한다.

로봇은 주로 낙상, 사람 쓰러짐, 주취자, 화재, 비명 등 안전과 관련한 부분을 인지해 상황별 주의 멘트를 하고, 사이렌 소리, 유리 깨지는 소리 등으로 비상상황을 알린다. 상황 발생 시 상황실에도 즉시 전파돼 위급한 경우 직원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남대 관계자는 “로봇이 도입된 이후 현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카메라를 통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로봇이 순찰을 도는 방향에 전동킥보드 등이 정리되는 등 부수적인 도움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양재희 기자 heestory@

한빛원전 2호기서 황산액체 191ℓ 누출

외부 유출은 안돼...회수 조치

영광 한빛원전 2호기에서 황산액체 191ℓ가 누출돼 처리작업이 이뤄졌다.

15일 한국수력원자력공사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께 영광군 흥농읍 한국수력원자력 한빛발전소 2호기 황산액체 저장탱크에서 누출됐다.

조사결과 황산은 탱크 내 벨브에서 흘러나온 것

으로 확인됐으며 출동한 소방당국과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등에 의해 회수 조치가 진행됐다. 탱크 내에서 누출된 황산은 다이크(방류벽)내부에 고여있는 상태였으며 외부로 나오진 않았다.

누출된 황산액체는 열교환 작업 후 터빈을 돌리는 2차 계통에서 사용되는 물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쓰는 필터인 이온교환수지를 재생할 때 사용되는 물질이다.

한빛원전 측은 “원전 내 황산 저장 탱크와 직원 상주 공간이 분리돼 있어 별도로 대피한 인원은 없었다”며 “벨브 차단 등 1차 안전 조치는 완료된 상태이나, 근본적인 수리 작업은 벨브 부품 보유 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한 후 착수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뇌물수수 혐의 구속기소 전남 국회의원 보좌관 보석 신청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남 지역의 한 국회의원 보좌관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지난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공판 과정에서 증인 신문이 끝났으므로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으며, A씨가 받았다는 돈의 성격과 금액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석 청구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지역 건설업자 B씨로부터 국가보조금 지급 사업에 선정되게 해달라는 정략

을 받아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벌린 돈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3일에 열릴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북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